

2016 연기대상 시상식



올해 '별종의 별' 누구

KBS 대박... 송중기·박보검 등 높은 인기로 고민
SBS 중박... 유아인·김래원 등 고루 존재감 과시
MBC 족박... 대상 줄 히트작 없어 민망할 정도

KBS와 SBS는 행복해서, MBC는 초라해서 고민이다.

방송 3사가 연말 연기대상의 MC를 확정하고 베스트커플과 인기상 등 누리꾼 투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30일과 31일 밤 진행될 3사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KBS. 풍성했던 밥상에 행복한 고민=KBS는 상을 줄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상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다. 그만큼 올 해 드라마국의 밥상이 풍성했다.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송혜교를 필두로, '구르미 그린 달빛'의 박보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박신양, '아이가 다섯'의 안재욱 등이 나란히 반짝반짝 빛나는 성과를 내며 KBS의 위상을 높였다. 이들의 연기는 모두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작품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상을 놓고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구르미 그린 달빛'의 김유정, '아이가 다섯'의 소유진, '태양의 후예'의 진구·김지연 등도 비중 있는 상을 노리고 있다.

KBS는 또한 비록 기대에 못 미치거나 큰 반향을 낳지 못했어도 쟁겨줘야 할 배우들이 많다. '함부로 애타게'의 김우빈·수지, '공랑가는 길'의 이상윤·김하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이동건·조은희 등이 대상 이외의 상에서 이름이 거론된다.

▷SBS. 대박은 없지만 중박 이어져=SBS는 대박은 없었지만 중박이 이어져 역시 만만치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육룡이 나르샤'의 유아인, '리멤버 아들의 전쟁'의 유승호, '질투의 화신'의 조정석, '닥터스'의 김래원, '남만닥터 김사부'의 한석규, '푸른바다의 전설'의 전지현, '미녀 공심이'의 남궁민 등이 고루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했다.

또 '질투의 화신'의 공효진, '닥터스'의 박신혜, '남만닥터 김사부'의 유연석과 서현진, '푸른바다의 전설'의 이민호, '미녀 공심이'의 민아도 시정률과 비례해 수상 가능성이 크다.

시정률은 낮았지만 이쁨값을 한 배우들도 있다.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의 이준기·아이유, '대박'의 장근석, '탄파라'의 지성, '원티드'의 김아중 등이다.

▷MBC. 유례없는 흥년에 초라한 밥상=MBC는 올해 유례없는 흥작이다. 딱히 대상을 줄 만한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고, 중박도 거의 없다. 그나마 'W'의 이종석, '소꿉왕 루이'의 서인국 정도가 이쁨값을 했지만 시정률 등을 놓고 볼 때 대상을 놓고 경합하기는 민망한 면이 있다. 'W'의 한효주, '소꿉왕 루이'의 남지현, '내 딸 금사월'의 전인화와 백진희가 이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결혼계약'의 이서진·유이, '가화만사상'의 이상우·김소연, '육중화'의 진세연은 MBC 주말극의 자존심을 세운 공이 크다.

작품은 참패했지만 MBC가 외면할 수 없는 연기자들도 있다. '운빨 로맨스'의 류준열·황정음, '캐리어를 끄는 여자'의 최지우, '굿바이 미스터 블랙'의 문채원, '역도요정 김복주'의 이성경 등이다.

MBC '정윤희 아들' 캐스팅 논란 확산

김민식 PD "드라마 출연 종용에 출연료 인상도 지시" 밝혀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윤희 씨 아들 배우 A(32)씨의 MBC 출연 청탁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MBC 드라마국의 김민식 PD는 지난 19일 회사 사내게시판에 올린 '저는 장근수 본부장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가 정상적인 오디션 과정을 거쳐 캐스팅됐다는 장근수 드라마 본 부장과 MBC 주장을 반박했다.

1996년 MBC에 입사한 김 PD는 지난해 종영한 주말극 '여왕의 꽃'을 비롯해 '내조의 여왕'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등을 만들었다.

김 PD는 "장근수 본부장은 때로는 제작사 대표를 통해, 때로는 연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남자 배우(A)를 반드시 드라마에 출연시키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본부장이 대본을 보고 주인공 남동생 역할을 지정해 캐스팅을 주문한 일도 있었고, 비중이 없는 신인치고 너무 높은 출연료를 불러 제작진이 난색을 보일 때는 "출연료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캐스팅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A 씨가 괜찮은 배우이니 오디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꼭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장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과 상충된다.

김 PD는 또 장 본부장이 A 씨 특혜 의혹과 안광환 MBC 사장을 연결짓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이건 사실일 리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아무리 가능성 큰 신인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해도, 배역도 이미지도 출연료도 안 맞는 신인의 역지 출연을 위해 사장을 팔았을 리 없다"면서 "윗사람 권세를 거지로 동원할 분이 아니다"라면서 안 사장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독립영화 '죽구왕'을 통해 영화계에 얼굴이 알려진 A씨는 최근 종영한 사극 '육중화'를 비롯해 '화려한 휴식', '딱 너 같은 딸', '빛나거나 미치거나', '야경꾼 일지', '오만과 편견' 등 최근 2년간 MBC TV 드라마에 조역으로 내리 출연했다.

EXID 솔지 건강 이상으로 활동 중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연말 시상식 4명만 오를 예정

결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솔지가 건강 이상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21일 소속사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솔지는 최근 발열, 안구 돌출 등의 증세를 보여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판정을 받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갑상선 증대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소속사는 "솔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며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 판단했다"며 "솔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치료에만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시상식 무대에는 솔지를 제외한 멤버 엘리(L.E), 하니, 헤린, 정화 4명만 오를 예정이다.

솔지는 이날 자신의 사물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다들 너무 놀라신 거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솔지는 "이런 연말 무대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일만 나아서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봄>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흥남 나철, 백년의 유산 스페셜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	40 지추천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
11		0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40 KBC 12뉴스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특집 무형유산 한마당 전통의 맛과 흥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리얼스토리 논	00 TV블로그 썸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00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지식인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20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예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수목드라마 <오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신성장동력, 핀테크	10 해피 투게더	10 닥터고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넷위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티키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연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함참 스테이크와 만두피 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포랜드-한지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웍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오솔 상자 15:45 코코코 다코 16:15 두디다롱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30 뽀뽀똥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baby on the way -내 동생은 0살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키리키리산 유목민의 여름 준비 20:50 세계테마기행 <대지의 끝을 가다, 칠레 4부 불과 물의 낙원, 푸른> 21:30 한국기행 <독 특은 인생 사이드 투어 4부 캠핑카와 짐사기>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음 11월 24일 戊寅)	
子	48년생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따져 볼 일이다. 60년생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84년생 우선시 해줘야 할 바가 분명히 있었다. 행운의 숫자 : 64, 93	午	42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면 숨겨 놓을 것이다. 54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66년생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자. 78년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81, 90
丑	49년생 속담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미하다. 61년생 전채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겠다. 73년생 짐작만으로 예단한다면 큰 코 다칠 수다. 85년생 무의식중에 흘린 말이 말쑥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95	未	43년생 기존에 영위되어 왔던 바와는 별개로 다른 기운이 보이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힘들다. 55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형태만상을 이루리라. 79년생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26, 92
寅	50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62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74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86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91, 99	申	44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걸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56년생 방비를 잘 해야만 누적된 실적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68년생 주변의 의견과 관련하여 호흡을 맞추어야만 하리라. 80년생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15
卯	51년생 뒷방의 일이 터진다. 63년생 정곡을 찢어서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곱돌면서 헛고생만 할 뿐이다. 75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87년생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31, 48	酉	45년생 지난날의 공적이 인정되어 호평을 받게 된다. 57년생 명분이나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우선하라. 69년생 비움속 새롭게 채워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적을 버리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4, 21
辰	40년생 재량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음을 알자. 52년생 주위를 돌아보라. 64년생 실행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6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88년생 오리무중이니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8, 83	戌	46년생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58년생 한 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70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동시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82년생 확실한 역할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8, 12
巳	41년생 숨은 기쁨이 크다. 53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65년생 허점을 보이지 말라. 77년생 마음가짐 못 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 89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72, 41	亥	47년생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니 다양한 대책과 대비를 요한다. 59년생 현저한 변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71년생 파상적인 양상을 띠다가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 83년생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8, 77